
FTA 추진대비 상대국 농산물 경쟁력 및 우리 농산물 수출 가능성 파악을 위한 해외출장 결과 보고

2009. 12.

목 차

I. 출장 개요

II. 출장 결과

1. 호주와 뉴질랜드 농업개황
2. 우리나라와 교역현황
3. 현지 면담결과
4. 시식 및 품질 검토결과

I. 출장 개요

- 출장목적: FTA 추진대비 상대국 농산물 경쟁력 및 우리 농산물 수출 가능성 파악
- 출장지역: 호주 (멜번)/ 뉴질랜드 (오클랜드)
- 출장기간: 12.4 ~ 12.11
- 출장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글로벌협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김태훈

○ 출장일정

날짜	일정 및 면담	비고
12.4(금)	○ 출국 (한국-호주 멜번)	
12.5(토)	○ 멜버른 지역 재래시장 및 대형할인점 방문 - South Melbourne Market,	
12.6(일)	○ 멜버른 지역시장 및 한인 식품점 방문 - QUEEN VICTORIA MARKET 등	
12.7(월)	○ 소 사육농가 방문 ○ Gurdies Winery 방문 ○ 현지김치가공공장 방문	
12.8(화)	○ 낙농협회 Dairy Australia 방문 - 현지 낙농품 생산동향, 수출지원정책 등 파악 ○ 수입업체 면담 - 면담자 : Jinny Trading 사장 황양훈 - 한국산 농산물 수입시 애로사항 청취	
12.9(수)	○ 멜버른 출발 ○ 오클랜드 도착	
12.10(목)	○ 폰테라 본사 방문 - 수출현황, 품질관리방법 등 파악 ○ 오클랜드 지역 유통매장 방문 및 바이어면담(한양유통) - 판매 농산물 점검 및 한국산 판매실태 조사	
12.11(금)	○ 인천 도착	

○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지니식품 (J.T INTERNATIONAL)	사장	황양훈	jinyh975@hanmail.net
Dairy Australia	International Market Development Manager	Phill Goode	pgoode@dairyaustralia.com.au
Dairy Australia	International Market Manager	Mayni Lim	mlim@dairyaustralia.com.au
한양유통 (Hanyang Corporation Ltd.)	사장	이성훈	hanyangnz@hotmail.com
Fonterra	Trade Strategy Manager	James McVitty	james.mcvitty@fonterra.com
Fonterra	Global Trade & Ingredients	Alex Worker	alex.worker@fonterra.com
ICE COCO (호주 김치가공공장)	사장	조문주	

II. 주요 출장 결과

1. 호주, 뉴질랜드 농업개황

1.1. 호주

- 호주의 국내총생산은 9,914억달러(2008년기준)로 우리나라보다 6.8% 높음. 1인당 GDP는 4만7,43달러로 우리보다 약 2.5배 높은 수준임.
- 상품수출은 2008년 1,871억 달러로 수입규모 2,003억달러 보다 작아 132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함.
- 인구는 약 2천만명으로 우리나라의 43%수준이며 실업률은 4%를 유지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수준이었으나 2008년은 4.4%로 높아짐.

표. 호주의 주요경제지표

	2006	2007	2008
GDP(당해년 가격, 10억달러)	754.9	907.9	991.4
1인당 GDP(당해년 가격, 달러)	36,594.0	43,534.0	47,043.0
경제성장률(%)	2.8	4.0	2.1
수출 (100만달러)	123,293.0	141,099.0	187,079.0
수입 (100만달러)	139,253.0	165,336.0	200,272.0
경상수지 (100만달러)	-15,960.0	-24,237.0	-13,193.0
총인구 (천명)	20,628.0	20,854.0	21,074.0
실업률 (%)	4.8	4.4	4.2
소비자물가상승률 (%)	3.5	2.3	4.4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www.kosis.kr)

- 호주의 국토면적은 7억 7,412만ha이며 이중 5.8%에 해당하는 4,453만 ha가 경지면적임. 우리나라보다 25배 넓은 면적임.
- 농가인구는 2006년 85만명으로 총인구의 4.1%를 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6.1% 보다 낮음.
- 전체 GDP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4%로 우리나라의 2.9%보다는 약간 낮은 편임.

표. 호주의 농업관련 지표

	단위	2005	2006	2007
총면적	천ha	774,122	774,122	774,122
경지면적	천ha	49,742	48,065	44,530
경지면적비중	%	6.4	6.2	5.8
총인구	천명	20,395	20,628	20,854
농가인구	천명	855	851	
농가인구비중	%	4.2	4.1	
GDP중 농림어업비중	%	3.3	3.1	2.4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www.kosis.kr)

- 호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곡물은 밀, 보리, 수수, 귀리, 쌀 등임. 그밖에 감자, 옥수수, 대두 등도 생산되고 있으나 옥수수와 대두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임.
- 곡물 중 밀이 가장 중요한 품목이지만 가뭄 현상이 지속되어 2007년 밀 생산량은 2006년에 비해 57%나 감소함. 주로 중부 퀸즈랜드,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등 밀벨트(wheat belt) 지역에서 생산됨.
- 수출이 이루어지는 곡물은 주로 밀과 보리로 볼 수 있음.
- 쌀은 가뭄으로 생산이 급감하고 있으며 수입국으로 전환됨.

표. 호주의 곡물 수급

단위: 천톤, %

	구분	2004	2005	2006
밀	생산량	21,905	25,090	10,822
	수출량(A)	18,451	13,915	14,976
	수입량(B)	0.1	0.03	0.02
	순수출량(A-B)	18,451	13,914	14,976
쌀	생산량	553	339	973
	수출량(A)	0.02	0.01	0.00
	수입량(B)	0.02	0.00	0.05
	순수출량(A-B)	-0.00	0.01	-0.05
보리	생산량	7,740	9,869	4,257
	수출량(A)	6,710	3,928	4,799
	수입량(B)	0.06	0.04	0.03
	순수출량(A-B)	6,710	3,928	4,799
귀리	생산량	1,283	1,416	748
	수출량(A)	215	135	186
	수입량(B)	0.02	0.00	0.00
	순수출량(A-B)	214	135	186
수수	생산량	2,009	2,011	1,932
	수출량(A)	79	62	50
	수입량(B)	0.01	0.00	0.00
	순수출량(A-B)	79	62	50
감자	생산량	1,310	1,288	1,100
	수출량(A)	52	50	35
	수입량(B)	0.05	0.01	0.11
	순수출량(A-B)	52	50	35

자료: FAO STAT <<http://faostat.fao.org>>

- 호주의 과일은 기후대가 다양하여 열대성 과일과 온대성 과일이 고르게 생산됨. 열대성 과일 가운데 오렌지, 레몬, 바나나, 파인애플이 주로 생산되고 온대성 과일은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등이 생산됨.
 - 포도는 주로 와인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전체 포도생산의 90%가 와인 생산에 이용됨.
- 채소와 과채중에서는 토마토와 양파의 생산이 많으며 두 품목 모두 자급을 하고 있음. 그러나 고추, 마늘, 딸기, 오이 등의 생산은 미미한 수준임.
- 축산물 가운데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쇠고기로 연간 200만 톤 이상이 생산됨.
 - 닭고기 생산량은 2006년 77만 톤이며 2만 톤 정도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돼지고기 생산량은 40만 톤 정도에 불과함.
 - 양고기 생산량은 연간 60만 톤 수준으로 그 가운데 50% 이상이 수출됨.

표. 육류 생산과 수출(2007년)

소 두수 (백만두)	양 두수 (백만두)	육류 생산량 (천톤)	육류 수출량 (천톤)	호주 소비량 (천톤)
28.04	85.7	3,258	1,829	1,651

자료 : ABARE, Australian Commodity Statistics, 2008

- 호주의 젖소 사육두수는 가뭄 등의 원인으로 2006~07년 180만 두로 200년대 들어 감소하고 있음. 하지만 젖소 한 마리당 우유 생산은 증가하고 있음.
 - 우유 생산은 자연조건의 악화와 우유 산업의 규제완화로 인한 경쟁심화 등으로 감소함.
 - 우유 생산감소는 버터, 치즈, 분유 등 유제품 생산도 감소의 요인이 됨.

표 . 호주의 젓소사육 및 낙농품 생산현황

단위: 천 톤

연도	사육두수 (천 두)	마리당 생산량 (L)	생산량						
			우유(백만L)	버터	치즈	전지 분유	탈지 분유	카제 인	버터밀크 분유
2004-05	1,942	5,215	10,127	147	388	189	189	13	17
2005-06	1,881	5,395	10,089	146	373	158	205	12	16
2006-07	1,800	5,324	9,583	133	364	135	191	8	14

자료: Australia commodity statistics(2007).

1.2.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GDP는 1,264억달러(2008년기준)로 우리나라의 14%수준이나 총인구가 작아 1인당 GDP는 2만9,873달러로 우리보다 56% 높음.
- 경제성장률은 2%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1.0로 감소하였음.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38억달러의 적자임.
- 인구는 423만명으로 우리나라의 8.7%수준이며 실업률은 3~4%를 유지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수준이었으나 2008년은 4.4%로 높아짐.

표. 뉴질랜드의 주요경제지표

	2006	2007	2008
GDP(당해년 가격, 10억달러)	107.5	130.8	126.4
1인당 GDP(당해년 가격, 달러)	25,885.0	31,201.0	29,873.0
경제성장률(%)	2.8	2.3	-1.0
수출 (100만달러)	22,434.0	26,965.0	30,582.0
수입 (100만달러)	26,430.0	30,897.0	34,374.0
경상수지 (100만달러)	-3,996.0	-3,932.0	-3,792.0
총인구 (천명)	4,153.0	4,193.0	4,230.0
실업률 (%)	3.8	3.6	4.2
소비자물가상승률 (%)	3.4	2.4	4.0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www.kosis.kr)

- 뉴질랜드 국토면적은 2,677만ha로 우리나라보다 2.7배 넓음. 경지면적은 국토면적의 3.5%인 93만ha로 우리나라의 52% 수준임.
- 농가인구는 2006년 34만명으로 총인구의 8.1%를 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6.1% 보다 비중이 높음.

표. 뉴질랜드의 농업관련 지표

	단위	2005	2006	2007
총면적	천ha	26,771	26,771	26,771
경지면적	천ha	1,047	975	932
경지면적비중	%	3.9	3.6	3.5
총인구	천명	4,111	4,153	4,193
농가인구	천명	336	335	
농가인구비중	%	8.2	8.1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www.kosis.kr)

-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주요 곡물은 밀, 보리, 감자 등임.
 - 밀과 보리는 각각 30만 톤 정도 생산되지만 자급을 이루지 못하는 수준임.
 - 감자의 생산은 50만 톤, 소비는 47만 톤으로 자급률이 100% 약간 상회함.

표. 뉴질랜드의 곡물 수급 현황

		단위: 천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301	321	319	319	262
	소비량(B)	634	593	668	714	617
	자급율(A/B)	48%	54%	48%	45%	42%
보리	생산량(A)	441	378	303	302	277
	소비량(B)	442	378	328	305	282
	자급율(A/B)	100%	100%	92%	99%	98%
옥수수	생산량(A)	149	197	168	210	227
	소비량(B)	170	211	171	210	227
	자급율(A/B)	88%	93%	98%	100%	100%
귀리	생산량(A)	35	30	29	25	28
	소비량(B)	36	30	29	25	29
	자급율(A/B)	98%	99%	100%	99%	99%
감자	생산량(A)	500	500	500	500	501
	소비량(B)	467	470	473	473	474
	자급율(A/B)	107%	106%	106%	106%	106%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 <<http://faostat.fao.org>>

-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주요 과일은 사과, 키위, 포도 등이며 과일 재배면적은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임.
- 사과의 경우 2000년 1만 4천 ha에서 2005년 1만 1천 ha로 재배면적이 감소함. 따라서 사과 생산량도 동기간 62만 톤에서 52만 톤으로 감소함.
- 포도 생산량은 2006년 18만 5천 톤수준이며 자급률은 95% 수준임
- 키위 생산량은 30만 톤을 넘으며 세계 2위의 키위 생산국임. 세계 키위 생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90%가 수출됨.

표 . 주요 과일의 재배면적

단위: 천 ha

항목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재배면적	사과	14	13	12	11	11	11
	키위	12.2	10.1	12.0	10.6	10.9	11.5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표. 뉴질랜드의 주요 과일 수급 현황

단위: 천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사과	생산량(A)	531	501	546	524	354
	소비량(B)	212	179	188	207	90
	자급율(A/B)	250%	280%	290%	254%	395%
포도	생산량(A)	119	76	166	142	185
	소비량(B)	125	85	175	153	194
	자급율(A/B)	95%	90%	95%	93%	95%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 <<http://faostat.fao.org>>

- 축산업은 뉴질랜드 농업부가가치의 약 69%(2007년 기준)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임.
- 축종별로 사육규모를 보면 양이 3,846만두로 가장 많고, 닭이 1,776

만수, 젓소가 526만두, 육우 439만두임. 돼지는 사육규모가 작음.

표 . 주요 축종별 사육규모(2007년)

	양	닭	젓소	육우	사슴	돼지
사육두수(천두)	38,460	17,760	5,261	4,394	1,396	367

자료:농경연, 세계농업 3월호, 2009

- 낙농업은 뉴질랜드의 핵심적인 농업 분야로 농업 부문 중 GDP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산업임.
- 뉴질랜드의 젓소 사육두수는 2005년도에 약 500만두수로 1995년에 비해 1백만 두 정도가 증가함.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유 생산량도 1995년 929만 톤에서 2005년 1,450만 톤으로 증가함.

표. 뉴질랜드의 젓소 사육 두수와 우유 생산 현황

단위: 천 두, 천 톤

연도	젓소사육두수	우유 생산량
1995	4,090	9,285
2000	4,599	12,235
2001	4,846	13,162
2002	5,162	13,925
2003	5,102	14,346
2004	5,152	15,000
2005	5,070	14,500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2006).

- 뉴질랜드의 낙농품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3.4%(200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계 낙농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EU에 이은 제 2위의 낙농품 수출국임.
- 2007년 3월을 기준으로 전지분유 70만 톤, 버터 42만 톤, 탈지분유 37만 톤, 치즈 30만 톤, 카세인 21만 톤 등을 수출함.

표 . 뉴질랜드의 낙농품 수출 현황(2007년 3월)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품목	수출량	비중(%)
전지분유	682	29
버터	420	18
탈지분유	368	16
치즈	303	13
카세인	206	9
기타	351	15

자료: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and forestry(August 2007)

- 뉴질랜드의 자국내 쇠고기 시장이 작아 생산량의 80% 정도를 세계 90여국에 수출함.
- 뉴질랜드의 쇠고기 수출은 전체 수출의 92%가 냉동육임. 냉동육의 50%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됨.
- 뉴질랜드의 쇠고기 생산량은 세계 생산의 1% 수준으로 생산량 자체는 많지 않으나 세계 쇠고기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로 높은 편임.

표 . 뉴질랜드의 축산물 생산량 및 수출량

단위: 천 톤

항목	품목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생산량	쇠고기	623	568	592	576	660	710	652
	돼지고기	51	47	47	47	48	52	46
	양고기	533	533	562	521	546	509	520
	닭고기	89	105	114	127	136	147	NA
	가금육	91	107	116	129	138	149	NA
수출량	쇠고기	NA	331	325	374	423	391	373
	양고기	NA	357	342	354	352	360	368

NA: not available.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FAO STAT(2006).

2. 우리나라와 교역현황

2.1. 호주

- 호주와 우리나라의 상품교역을 보면,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왔으나 수입이 보다 빠르게 늘어나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적자폭이 점차 확대되어 감.
- 2008년 대 호주 수출액은 52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3.4배 많은 180억 달러임. 따라서 무역적자는 129억달러에 달함.

표. 우리나라와 호주의 전체 교역 실적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	3,272	3,378	3,812	4,962	4,691	5,171
수입	5,916	7,438	9,859	11,309	13,232	18,000
무역수지	-2,644	-4,059	-6,047	-6,617	-8,541	-12,829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KATI)

- 농업교역도 전체교역과 마찬가지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임. 농업수출은 2008년 7,796만 달러였으나 수입은 19억2,088억달러로 무역수지 적자가 18억 4,292억달러에 달함.
- 부류별로 보면 농산물과 축산물의 무역적자액이 비슷한 수준임. 축산물의 무역적자 폭은 2000년대 중반이후 정체되었으나 농산물 적자폭은 빠르게 커지고 있음.

표. 호주와 농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 출(A)	농산물	17,000	20,800	34,800	49,000	62,000	64,467
	축산물	2,800	3,700	4,900	5,000	5,900	6,178
	임산물	200	200	400	500	600	906
	수산물	6,700	6,600	5,000	4,700	5,300	6,411
	합 계	26,800	31,300	45,100	59,200	73,800	77,961
수 입(B)	농산물	457,700	665,400	615,100	762,600	683,400	901,967
	축산물	276,300	461,400	661,300	815,200	897,100	825,462
	임산물	71,000	72,600	83,100	79,000	112,100	119,642
	수산물	1,500	900	1,200	1,400	1,900	73,808
	합 계	805,600	1,200,300	1,360,700	1,658,300	1,694,500	1,920,879
무 역 수 지(A-B)		-778,800	-1,169,000	-1,315,600	-1,599,100	-1,602,700	-1,842,918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KATI)

- 대 호주 수출 농식품의 대부분은 커피조제품이 차지하고 다음으로라면, 비스킷, 기타베이커리 등 임.
- 2008년 기준 커피조제품 수출은 2,370만달러, 라면 839만달러수준임.

표. 호주와 농수산물 교역 상위 10개 품목

단위 : 천달러

순 위	수	출	수	입
1	커피조제품	23,700	쇠고기	679,945
2	라면	8,388	사탕수수당	378,809
3	비스킷	5,234	밀	339,491
4	기타베이커리제품	3,644	보리	56,462
5	젤라틴	3,528	칩	50,850
6	기타음료	2,891	침엽수원목	44,667
7	기타파스타	2,298	치즈	33,524
8	곡류조제품	1,637	사료용근채류	26,284
9	발효유	1,579	유채유	20,042
10	국수	1,161	섬유판	18,250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KATI), 소분류 기준, '08년 기준

-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농식품을 보면 쇠고기의 비중이 가장 높고, 사탕수수당, 밀, 보리 등 원료 농산물 수입비중이 높음.
- 쇠고기 수협액은 6억 7,995만 달러(2008년 기준), 사탕수수당은 3억 7,881만 달러, 밀이 3억 3,949만달러임.

2.2. 뉴질랜드

- 대뉴질랜드 전체 수출을 보면 2008년에 18% 늘어나 8억2,5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이전에는 6억 달러대의 수출실적을 보였음. 반면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07년과 2008년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남. 2006년 수입액이 9억 6700만달러였으나 2008년에는 11억 2,200만달러로 증가함.
- 무역수지는 2008년에 2억9,700만달러 수준이며 2007년보다는 1억 7,400만달러가 감소함.

표.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전체 교역 실적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	433	620	670	673	699	825
수입	708	879	891	967	1,171	1,122
무역수지	-275	-259	-221	-294	-471	-297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KATI)

- 농업교역을 보면 2008년 무역수지가 7억8,544만달러 적자로 전체무역수지적자(2억9,700만달러)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즉 농업의 분야에서는 뉴질랜드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농어분야의 적자로 인해 전체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적자가 됨을 의미함.
- 부류별로 보면 축산물과 임산물의 적자폭이 폭이 비슷한 수준이며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작은 편임. 수산물은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

표. 뉴질랜드와 농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 출(A)	농산물	8,166	9,384	9,901	12,014	12,947	14,188
	축산물	2,440	1,745	1,823	1,859	3,103	3,309
	임산물	15	72	95	17	100	60
	수산물	30,487	44,544	60,476	39,377	68,293	60,612
	합 계	41,108	55,744	72,295	53,268	84,445	78,168
수 입(B)	농산물	33,500	59,661	70,134	74,825	92,458	93,320
	축산물	160,059	254,798	312,098	293,685	322,609	361,240
	임산물	295,694	308,986	297,354	328,956	394,858	392,613
	수산물	9,628	11,540	17,407	18,216	18,984	16,439
	합 계	498,881	634,984	696,993	715,682	828,909	863,612
무 역 수 지(A-B)		-457,773	-579,240	-624,698	-662,414	-744,465	-785,444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KATI)

- 뉴질랜드와의 농식품 교역을 보면 수출에 경우 커피가공품을 비롯하여 대부분 가공품이 상위를 점하고 있음.
- 2008년 기준 커피조제품 수출은 300만달러, 젤라틴이 269만달러, 라면이 206만달러임. 김치는 대뉴질랜드 농식품 수출 7위에 해당되며 2008년에 72만달러어치가 수출됨.

표. 뉴질랜드와 농수산물 교역 상위 10개 품목

단위 : 천달러

순 위	수 출	수 입
1	커피조제품 3,004	침엽수원목 363,800
2	젤라틴 2,686	쇠고기 155,918
3	라 면 2,061	치 즈 82,664
4	기타파스타 944	키 위 52,905
5	기타음료 753	카세인 32,994
6	기타베이커리제품 723	기타 축산조제품 24,682
7	김 치 719	양 장 16,044
8	비스킷 686	침엽수제재목 12,961
9	국 수 588	녹 용 12,138
10	곡류조제품 536	호 박 10,777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KATI), 소분류 기준, '08년 기준

- 뉴질랜드로부터 수입은 침엽수원목의 비중이 가장 높고 쇠고기, 치즈 등 축산물과 키위의 수입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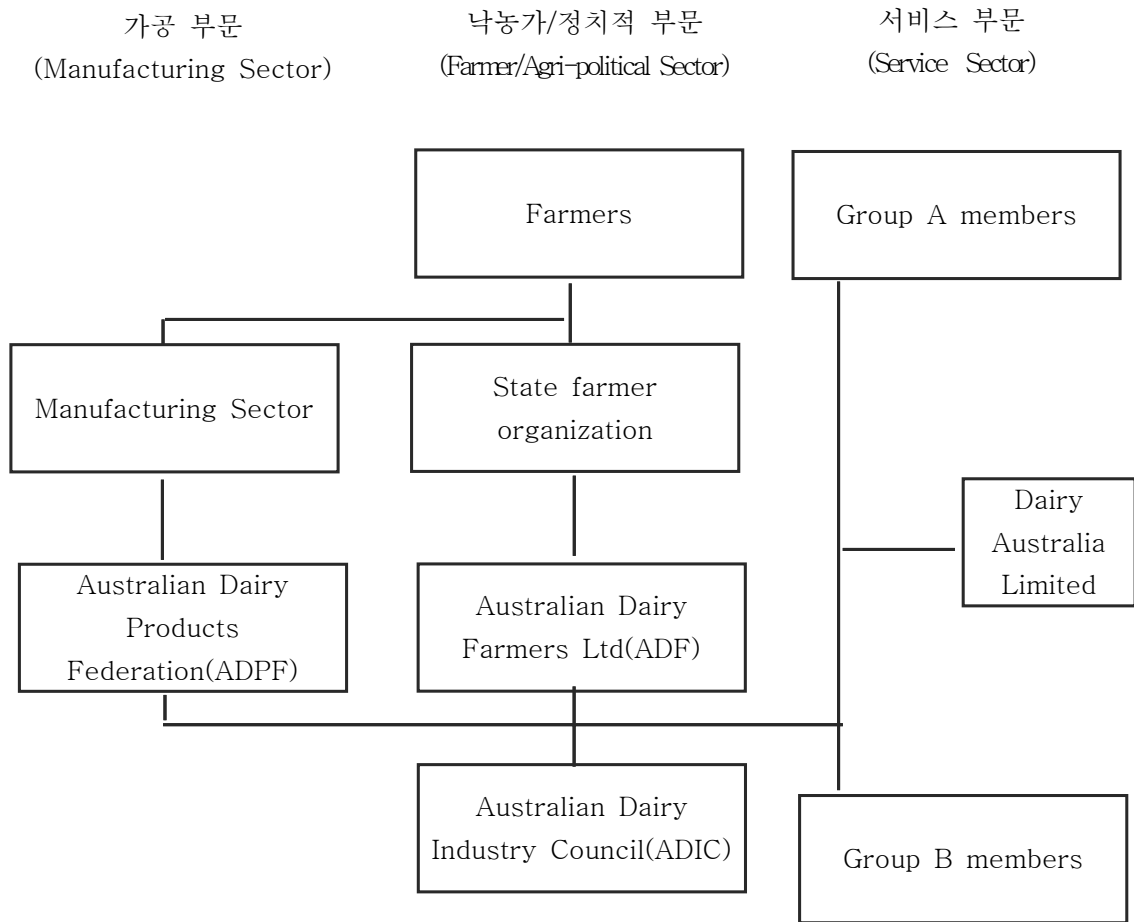
3. 현지면담 결과

3.1. 호주

□ Dairy Australia

○ Dairy Australia 조직 구성

- 낙농가, 유가공업체 등으로 구성



○ 주요역할

- 낙농산업의 이익 위한 연구, 개발 (낙농가, 제조업체 경쟁력 확보)
- 국내 시장확대 및 국제 무역확대 (국제적인 시장확대)
- 각종 정보제공 및 기술제공

○ 운용 : 연간 45백만\$

- 약 30백만\$ (농가부담금 0.3센트 / 리터당)
 - 정부지원금 15백만\$
 - 지출계획(2009-2013): 농가 생산성향상(45%), 부가가치, 수익성 높은 시장 및 상품 개발(29%), 호주 낙농업의 혜택 보호 및 증진(26%)
- 호주의 젖소사육규모는 대략 1.6백만두 정도이고 7,900농가가 있음. 따라서 호당 평균 사육규모는 210두 정도임.
 - 두당 우유생산량은 약 5,650리터 정도로 한국의 8,000리터 이상 보다 낮은 수준임.
 - 농가들은 이러한 가뭄에 점차 적응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음. 예를 들어 곡물이나 건초 비육을 높이고,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함.
 - 호주의 우유 생산은 2001/02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가뭄의 영향이 낙농업에도 미치기 때문임.
 - 생산된 우유는 치즈 33%, 시유 24%, 탈지분유/버터 25%,전지분유 12%, 카제인/버터 4%, 기타 2% 등으로 이용됨.
 - 호주의 우유 생산비는 \$30(호주달러)로 우리의 \$57(호주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우유가격은 저지방우유(2리터기준) \$4.77(호주달러)이며 우리나라가 대략 \$4.4(호주달러)로 비슷한 수준임. 하지만 일반 시유는 우리가 20%정도 높음.
 - 농가에 유대지급의 경우 음용유는 연간공급계약에 따라 유대정산하고 가공유는 전체시장 (수출/내수) 환원수익에 따라 유대정산 방식이며 우리나라는 유지방 기준 정산 매월정산하는 차이가 있음.
 - 호주의 우유 생산은 목초생육에 따라 계절성을 보여 왔으나 최근 점

차 변화되고 있음. 과거 8월부터 원유생산이 늘어나 익년 2월까지 생산이 많고 이외 기간은 상대적으로 생산이 작음.

- 과거 농가는 목초지만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 목초지만 이용하여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는 3%, 관개된 목초지 이용농가 22%, 곡물을 보조적으로 이용하여 사육하는 농가가 52%, 완전한 feedlot을 하는 농가가 2%정도임.
- 호주의 낙농가의 평균부채는 최근 5년간 50% 증가하였음. 이는 국제 원유가격이 고가일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한 금융비용이 국제 원유가격 하락으로 이자부담 증가했기 때문이며 또한 이에 상응하는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임. 하지만 정부는 충고 내지 조언, 이자율의 일부정도는 보상함.
- 호주 낙농가의 현안은 유대하락으로 경영상의 어려움과 가뭄으로 인한 곡물비율 가중이 되는 문제임.
- 2000년 7월 이전에는 시유와 가공용 원유 시장이 인위적으로 구분되어 가격지지 제도를 실시하였음. 수입제품과 경쟁으로 자국산 원유에 대해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했던 정부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음
 - 2000년 구조개혁은 3개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전체 낙농구조를 재편을 시도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소비자로부터 \$20억(호주달러)를 징수하여 충당함.(한화로 2조원 내외)
- 이러한 개혁결과 전면적인 낙농개혁과 구조조정으로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로 탈바꿈함.
 - 유대결정등에 정부개입 폐지 등
- 수출비중이 전체 우유생산의 45%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편중됨. 한국과의 FTA 는 관심은 많으나 한국정부가 까다로워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수출제품은 벌크제품이므로 한국의 낙농가에 대한 영향은 적

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물량보다는 품질위주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하고 있음.
- 호주의 생크림, 탈지분유, 유장 등의 제품 수출이 증가하는대신 치즈 제품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한국소비자들의 가격인하 요구때문임.
- 현재 호주내 유기농 우유 시장은 상업적이라기 보다는 건강측면 등으로 접근하는 초기단계수준임. 생산농가 비중이 5.79%, 2003년 기준 생산액이 7,410천달러 수준임.
- 낙농헬퍼는 개인업체가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원유쿼터의 매매는 없음. 로봇착유기는 3개농가에서 시범적으로 테스트중임.
- 낙농농가 단위 즉 생산주체별로 소규모 가공공장 (치즈등)은 1~2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은 없음.
- 집유차량 집유 용량은 일반적으로 25톤이며 경영관리는 Dairy Australia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음.
- 컨설팅은 조합과 대학 등에 의존하고 있음.

□ 지니식품(J.T INTERNATIONAL)

- 회사개요
 - NH무역 대행업체
 - 호주에 한국산 쌀 수입개시 하여 정착시킨 업체로 주로 충남 대산 농협 뜰부기 쌀을 취급하였음.
 - 초기에는 1주에 2컨테이너 수입하였으나 현재 물량 감소하고 있음.
 - 이외 김, 감기약, 공산품, 라면, 과자, 음료수 등을 수입함

- 호주내 한국농산물은 중국산에 대하여 불신이 크므로 고가전략으로 접근 필요함.
 - 호주내 아시아계 (중국인 20만명, 한국인 10만명)가 많고 대장금 이후 한국산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음. 따라서 드라마 촬영시 한국산 농산물 소품 활용이 수출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식품점 델번 16개소, 시드니에 약 66개소이며 교포뿐만아니라 현지의 아시아계를 주 공략대상함.
 - 현지 한국교포 수입상들의 문제도 있음(중국산을 강경산 짓갈로 둔갑시킨 사례 등)
- 호주내 대형유통업체로는 윌러스, Coles, ALDI, IGA 등이 있으며 중국인이 운영하는 대형 수입유통업체 BKK, 그랜드코럴 등도 있음.
- 호주에 한국산 쌀 판매가격은 도매는 \$43/25kg, 소매는 \$49이며 일본산은 \$69에 판매됨. 미국산은 도매는 \$38, 소매는 \$46수준임.
 - 미국산 쌀 가격 인상 및 호주내 생산량 감소로 일부에서는 향후 2년내 \$100/25kg까지 상승할 것이고 예상함.
- 중국인이 경영하는 미국산 쌀 수입업체가 예산의 황금쌀 수입을 개시하고 있음. 이는 한국산 쌀을 지속적인 수입할 의도보다는 한국인들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 한국산 쌀을 수입하여 고가제품으로 시장에 런칭하였으나 이후 한국내 14개 브랜드가 난립하여 저가 판매로 시장질서를 흐려놓고 있음.
 - 지니식품의 경우 품대 \$38에 통관제비를 포함하여 \$40.5\$에 수입하고 있으나 일부 한국내 지자체들의 수출경쟁으로 20kg 짜리를 34\$에 도매하는 업체도 있음.
 - 중국업체에 쌀을 공급하여 주는 국내 지자체등에는 이해할 수 없음 (한국 교포들의 유통장악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
 - 미국산 쌀은 벌레가 없으나 한국산은 있음 (농약에 안전 홍보)
 - 문경쌀의 경우 냉장상태로 수입된 적 있으나 과도한 물류비 부담

- 현지 김치공장은 멜번에 2개소, 시드니에 3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김치 완제품은 종갓집, 하전정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소량임.
 - 중국인들이 현지에서 한국배추를 경작하여 배추를 공급하고 있으며 완제품의 김치보다는 절인배추, 무 등은 수입가능성이 높음
- 한국농산물의 대호주 수출가능성을 보면 틈새시장으로 개척가능성이 아주 높음. 수출가능 품목으로는 파프리카, 감자, 감, 딸기, 거봉포도, 연시 등 생산시기가 겹치지 않는 전체 농산물 가능하다고 판단됨.
 - 김치의 경우 절인배추를 3-4포기씩 진공포장하여 수입하는 것은 당장이라도 시도하고 있고 또한 농협과 계약재배 희망함.
 - 축산물의 경우 삼계탕, 돼지고기 및 관련 가공품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제품은 수입 가능성 있음
 - 딸기의 경우 항공화물로 반입하여도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물류비 지원 요망 (호주에서 여타 아시아국들로 부터 딸기수입하고 있음)
 - 연시의 경우 다이어트 식품으로 가능
- 기타 수출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으로 검역시 1 컨테이너당 샘플을 30kg 채취하면서 훼손된 포장지대는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표본검사로 전환요청
 - 중국산 현미는 통관이 되나 한국산은 않되므로 개선 필요
 - 해외 농산물 수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고품질, 고가전략)
 - 김의 경우 한국인은 싼 제품 선호하고 중국인은 싱거운 김을 선호하는 등 현지시장의 정확한 조사 필요
 - 수입위생조건이 (검역 등) 제정되지 않은 전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
 - 과일 등 청과류는 대과 보다는 수출용 중/소과 생산 요청
 - 호주에 안테나 슝 운영협조 요청
 - 지속적인 홍보 및 농협 관계자들의 방문을 요망함

□ ICE COCO (호주 김치가공공장)

○ 회사개요

- 호주 멜번 현지에서 김치생산공장 경영(하루 500kg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제품 종류는 포기김치, 막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등이 있음.
- 이외 한국내 고려당의 빙과류, 하동농협의 배를 수입하고 있음
- 파프리카, 삼계탕, 열가공 돈육제품등은 취급을 고려하고 있음

○ 김치생산을 위한 배추는 계절별로 호주내 생산량 편차가 매우 큼(고개일 경우 8포기가 40\$에 거래됨)

- 대부분의 야채유통을 중국인들이 잡고 있음
- 젓갈은 베트남산 사용, 고추가루 등은 중국산 사용

○ 현재 화선정, 종갓집 김치가 수입되고 있으나 적은 물량임. 김치소비자는 교포가 60-65%이고 나머지는 아시아계임

- 막김치는 학생, 아시아계가 선호하고 포기김치는 교포가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가격때문임.
- 대장금 이후 한국산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음
- 완제품 보다는 절임배추 등의 수입 가능성은 있음

○ 수출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으로 중국산 배추는 수입되고 있으나 한국산은 되지 않고 있어 한국산 배추도 수입위생조건 제정 요망함.

- 과일 등 청과류는 대과 보다는 수출용 중/소과 생산이 필요함.
- 서울우유에서 멜번 현지에 냉동피자제품 생산을 이탈리아인에게 시설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교포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
- 통관업무 등 전문분야의 종사할 한국인 양성 필요

□ Caldermeade Farm

○ 농장개요

- Caldermeade Farm은 350-400두를 착유하는 상업농임.
- 하루 12,000리터의 우유를 생산하여 "Pura Milk"브랜드로 판매됨.
- 목초지 50ha에 지하수를 이용한 관개시설 갖추.
- 송아지 등을 사육하기 위해 목장에서 떨어진 곳에 일부 임대함.
- 농장에서는 사료용 옥수수 등의 곡물을 재배함.
- 위치: 4385 South Gippsland Highway Caldermeade 3984
- Tel: 03 5997 5000, Email: maxwellj@tpg.com.au

- 잉여 목초는 봄에 수확해서 건초 등의 형태로 병커에 저장함.
 - 방목을 위한 목초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건초나 곡물을 섞어 사육함.
- 가을에 송아지를 낳고 8주의 휴식후 하루에 25리터의 우유를 생산함.
- 400여두의 홀스타인이 하루에 두 번(아침 4:30, 오후 3:30분)에 착유를 하며 두개의 착유장비로 착유시 한시간 20분정도 소요됨. 한 마리는 대략 10분 동안 rotary milking platform에서 착유를 함.
- 송아지가 출산되면 3개월 동안 하루 2번 2~4리터의 우유를 먹이고 이외에 곡물, 목초나 짚 등을 먹임.
- 젖소는 송아지를 낳고 10달동안 우유를 생산하고 2달은 쉬. 이농장의 젖소는 평균적으로 5년동안 착유를 함(5년 동안 하루에 2번, 일년중 300일 착유)

3.2. 뉴질랜드

☐ Fonterra

- 조직 개요

- 2001년 협동조합 설립 이래 11천명의 조합원을 가진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업체로 성장함.
- 매년 140억리터(1,440만톤)를 집유, 뉴질랜드 생산 유제품의 95%를 140여개국에 수출

표. Fonterra 조직현황

조직현황	현황
자산	144억 NZ달러(11조 3,410억원)
연간매출액	195억 NZ달러(15조 3,576억원)
판매량	263만톤
종업원수	15,900명
조합원(주주)수	10,724명

※ 2007. 5~2008. 7(14개월) 실적 기준

○ 조직구성

- 조합원(New Zealand Dairy Farmers)은 11천명으로 뉴질랜드 전체 낙농가의 95%가 조합원으로 가입함.
- 이사회(Fonterra Board of Directors)는 이사 13명으로 구성되며 조합원중 선출이 9명, 이사회 임명이 4명임
- 대의원회(Shareholders' Council)는 조합원 35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뉴질랜드 전국 35개 구역 대표들임. 이들의 역할은 조합원의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하는 것임.
- 분쟁조정위원(Milk Commissioner)은 대의원회에서 임명하는데 조합원간 분쟁 중재함.

○ 뉴질랜드 젖소사육두수는 약 4,000천두로 우리의 10정도 되며 가구당 351두임. 연간 우유생산량은 1,470만톤 수준임.

○ 뉴질랜드 우유 생산비는 100리터 당 \$27(NZD)로 우리나라의 \$73(NZD)의 37% 수준임.

- 우유 생산비중 사료비는 \$27중 95%를 차지하며 사료비를 세분화하면 95%는 조사료비이고 나머지 5%는 농후사료비임.
- 두당 원유생산량은 4,000리터로 우리나라의 8,566리터(2008년기준)에 비해 절반수준도 안됨.
- 유제품중 저지방우유는 리터당 \$2.9(NZD)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일반시유는 2리터에 \$4.09(NZD)우리보다 조금 낮은 수준임.
- 농가 유대를 지급하는 방식은 무지고형분 위주 연초 전망의 70%을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정산하고 있으면 정산과 관련하여 큰 문제는 없음. 농가도 특별한 불만사항없음.
- 뉴질랜드 원유의 유지방 함량이 높은 이유는 품종개량(저지 + 프리 지안)이 주요 원인이며 이러한 개량은 LIC 조합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업체도 간여함. 하지만 개량은 상업적이며 정부의 보조는 없음.
- 농업분야 정부지원은 없으며 직접지원은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 등에 한정하여 지원됨. 정부의 재정지출은 연구, 위생, 검역분야에 한정하며 정부는 농업관련 국가이익을 대변함.
- 뉴질랜드는 1984년까지 연료지원, 최저가격보상등 정부지원이 전산업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당시 목장의 주요 소득원은 정부지원액이었음. 하지만 1984년 이후 노동당 집권 이후 지원을 중단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당시에는 많은 힘이 들었으나 점차적으로 규모화, 전문화 등 개혁을 통하여 경쟁력을 회복하였고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었으며 현재에는 정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고 있음
-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낙농은 수출위주로 시장 다각화의 필요성 때문에 FTA가 매우 중요함. 한국과 FTA 시 한국 수출의 주력품은 시유

가 아닌 가공품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유성분 제품 및 동 제품의 다 변화 등에는 협력가능 분야로 판단됨.

- 유기농 유우협동조합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으며 유기농 우유가 생산되어 슈퍼마켓에 진열되고 있으나 상업적이지 못함(일종의 틈새시장). 상업적 접근이 아닌 생산자 자신의 신념 등 사상적 접근 형태임
- 조사료 생산장비, 착유시설관련 장비 구입시 폰테라 회사에서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로봇착유기는 방목사영으로 적합하지 않음.
- 경영관리를 위하여폰테라에서 개발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품질보증서비스(육류검사, 가축의 건강 및 전염병 등) 및 농가상담 서비스 (벤치마킹, 작물보호, 정보수집, 날씨변동 대응, 기술채택 등)는 정부지원 중단이후 폰테라에서 지원하고 있음

□ 한양유통

- 회사개요
 - 미국계 유통회사 Rhee Bros 뉴질랜드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독립회계를 함.
 - 연간 취급액 (매출액)은 약 \$ 10,000,000(NZD) 수준임.
 - 지난 10년동안 수입및유통업을 해 왔으며 취급품목은 생활용품 및 식료품 수입(한국쌀, 배, 라면, 양념불고기, 삼계탕, 햄) 등임.
- 뉴질랜드에서 한국 농산물 수입업체중 모양새를 갖춘업체는 거북과 한양유통 2개소 정도임
 - 뉴질랜드의 야채, 청과는 중국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음
 - 태국산 과일도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태국정부에서는 매년 박람회 형태로 판촉행사를 하고 있음
 - 한국은 지자체별로 (충북도청 : 매년 12월 중순 6년째 상품전시회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 전북등에서도 공동 행사) 홍보행사를 하고 있으며 한국산 농산물 판매에 기여하고 있음.

- 현재 수입하고 있는 농축산물중 쌀은 원래 캘리포니아산 쌀을 취급했으나 2008년 호주지역 가뭄으로 가격이 \$20에서 \$80로 인상되어 한국산 쌀(전북쌀) 취급하기 시작함. 이후 안정적인 판로 구축하고 있음
 - 가격은 미국등의 제품에 비하여 다소 고가이나 미국산을 원료로 재포장된 호주의 썬라이즈 회사 쌀의 경우 품질이 낮아 판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함
- 한국산 배의 경우 충북 (영동배), 전북 배를 취급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매출중에서 배 매출액이 가장 많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음
 - 2008년도 8컨테이너 수입 (148톤), 209년도 6컨테이너 수입
 - 판매대상 : 현지 슈퍼마켓 및 청과마켓(주로 교포 및 아시아계)
 - 한국산 배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은 크기, 맛, 고가에 놀람
 - 한국산 신고배와 같은 모양의 배가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생산시기가 1-2월이며 물량이 적고 신맛이 조금 있음.
 - 중국산 배가 저가에 수입 (1kg 당 1\$ 정도 저가) 되고 있으나 품질이 낮아 한국산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함
- 농산물에 대한 수출가능성을 보면 틈새시장으로 개척가능성이 아주 높음. 수출가능 품목 : 포도, 버섯, 메론, 사과, 꿀, 고구마, 딸기 등 생산시기가 겹치지 않는 전체 농산물 가능하다고 판단됨.
 - 축산물의 경우 삼계탕을 수입하고 있으나 돼지고기 및 관련 가공품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제품은 수입 가능성 있음
 - 라면 등 가공품은 현지화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음
 - 판매대상을 교민 슈퍼 → 중국인 운영 대형 슈퍼 및 야채상 → 현지인 운영 슈퍼로 보고 있으며 대형 매장은 취급을 기피함. 대형매

장은 일반적으로 이윤이 낮고 거래조건 불리하기 때문임.

- 수출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으로 배 이외 과일, 채소, 잡곡, 돼지고기 등 수입위생조건이(검역 등) 제정되지 않은 전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음.
- 과일 등 청과류는 대과 보다는 수출용 중/소과 생산을 유도해 주기 바람.
- 일본산 마요네즈는 수입되나 한국산은 안되는 등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중국산 종이 만두 파동 이후 한국산 만두를 수입하고 싶으나 만두 속에 있는 돼지고기의 안정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수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개선 필요함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행사 지원이 필요함.

4. 시기 및 품질 검토 결과

4.1. 호주

- dandenong 시장(재래시장)
 - 멜번 인근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과일 및 채소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
 - 채소중 마늘, 양파, 고추 등 양념채소는 우리가 소비하는 것과 비슷한 품종이 판매되고 있었으나 재래시장이어서 품질은 다소 미흡함.
 - 과일은 열대 및 온대과일이 모두 판매되고 있었으나 역시 품질이 매우 떨어짐. 귤과 배는 거의 상품성이 없으며 사과는 크기가 작고 너무 단단하여 국내산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 Safeway(대형할인점)

- 재래시장과 달리 대형할인점에서는 제품진열과 포장을 잘 해두었으나 국내산 과일에 비해 품질이 낮음.
- 포도는 껍질과 함께 먹는 것이며 크기가 작고 품위가 좋지 못함. 포장도 단순히 비닐에 넣어서 판매함

- 대형 할인점의 유가공품 매장 크기가 국내보다 3-4배 이상 넓었으며 이는 유제품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크다는 반증임.
- 시유가격은 국내와 유사한 수준이며 치즈, 버터는 국내시장가격의 2/3수준임.
- 일부 제품은 국내보다 10 - 20% 비싸게 판매되고 있음.
- 지방 1% 미만의 No fat 제품도 있음

- 치즈종류는 편의성을 높인 포장에 많고 어린이용 치즈도 다양함.
- 우유는 주로 1L, 2L, 3L 용기가 주종 이루고 있고 가공유 (딸기, 바닐라, 키위, 망고 등) 다양함.
- 가격도 제품군과 브랜드별로 다양함.

- 호주의 중립종 쌀은 10kg에 약 \$23달러에 판매되고 있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에 이용한 즉석밥 제품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음.

○ 한인 식료품점

- 한인식료품점에서 국내산 쌀은 \$25.90/10kg(해나루)에 판매되어 호

주산 중립종 대형마트 판매가격(\$23.64/10kg) 보다 높음.

- 호주산 쌀로 만든 밥이나 죽은 식미은 국내산과 미질이나 품위에서 큰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가격도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됨.
- 최근 몇 년간 가뭄으로 쌀 가격이 3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미국산 중립종 수입과 태국산 장립종 수입이 증가함.
- 한국산 쌀은 아직 한인 식료품점 위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다른 소매점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움.

○ 호주 육류 시식결과(야외바베큐식 조리시)

- 쇠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양고기를 소금외 특별한 양념없이 불판위에서 구워서 시식함.
- 시식결과, 돼지고기 삼겹살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삼겹살보다 뚜껑게 절단되어 판매되고 있음. 국내산에 비해 비개충이 상대적으로 얇아 기름기가 적음. 따라서 식감이 찢찢함.
- 쇠고기 목살은 식감이 질기고 냄새가 나서 구이용으로 부적절하고
- 양고기는 대체로 연하고 부드러움다는 평이 대부분임. 호주 내국인 뿐만아니라 보신용으로 한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음. 가는 갈비뼈 하나에 고기가 붙어 있어 굽기가 용이하고 뼈를 손잡이로 활용하여 먹기에 좋음.
- 쇠고기 갈비는 양념을 하여 시식하지 못하고 구워서 시식한 결과 대체로 부드러움.

○ 식당판매 육류 시식결과

- 호주의 중산층 이상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에서 와규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쇠고기를 현지인들이 소비하는 방식으로 조리된 음식을 시식함.
- 판매되는 메뉴는 곡물비육기간이 명시된 비육방법, 마블링 등급, 중량 등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음.
- 예를 들러 rib eye(select 급)은 120일 곡물비육, fillet(select 급) 120일 곡물비육, 와규, Wagyu(500일 곡물비육, 마블링 6+), Newyorker (Gold 급) 130일 곡물비육 마블링 2+ 등으로 표시됨.

- 시식 결과, 목초비육한 rump의 판매가격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육질이 질감. 하지만 골드급(new yorker, fillet)은 육질이 부드럽고 스테이크로 적합함. 호주산 와규는 rump의 경우 rib-eye에 비해 품질이 낮고 스테이크로는 질긴감이 있었음.

○ Queen Victoria Market

- 빅토리아 시장은 멜번 중심에 있는 시장으로 과일, 채소, 육류 등 농산물 뿐만 아니라 옷, 기념품 등 공산품도 함께 판매함.
 - 상설시장이 아니라 일주일에 4일(화, 목, 금, 토)만 오픈하고 있음.
 -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야채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으며 육류 및 육가공품은 판매점에 특성을 살려 다양한 종류가 판매되고 있음.
- 버섯은 우리가 소비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 판매되고 있으며 가지는 우리가 주로 소비하는 것에 비해 길이가 짧은 것이 판매되고 있음.

○ 호주산 육류의 숯불구이

- 호주산 와규는 일본에서 비육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사육하여 마블링과 육질, 질감이 뛰어남. 국내에서 고급육을 주로 소비하는 숯불구이에 적합하며 한우와도 경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등심과 갈비살은 곡물비육을 많이 하지 않아 질긴감이 있었으며 한우보다는 부드러운 맛이 덜함.

○ 호주산 과일의 당도 측정결과

- 호주산 과일은 사과와 배의 당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나 사과는 과육이 단단하고 크기가 작아 국내 소비자의 선호와 거리가 있으며 배

는 품위 낮고 신고배와 품종이 달라 수입되어도 국내소비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복숭아의 당도는 12브릭스로 나타났으며 과피가 매우 얇아 수입에는 부적적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산에 비해 크기가 작음.
- 오렌지는 껍질이 매우 두껍고 당도는 10.5브릭스정도이며 체리는 7.7브릭스의 당도를 보임.

4.2. 뉴질랜드

○ 뉴질랜드 할인점 유제품판매

- 유제품 강국답게 치즈, 발효유, 버터, 우유 등 유제품 종류와 가격이 다양함
- 시유가격은 타제품에 비하여 고가정책 유지 (1,400 - 1,800원/L)하고 있었으며, 일반우유보다는 저지방 우유가 많이 진열되어 있어 유지방 기피현상을 볼 수 있음.
- 치즈종류는 다양하고 전통적인 내추럴 치즈 뿐만 아니라 각종 야채를 넣은 치즈까지 판매중임.
- 우유는 주로 1L와 2L 용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시유, 저지방, 강화우유, PB 제품 등 다양함.

○ 뉴질랜드 한식당

- 뉴질랜드 한식당에서 판매되는 밥은 윤기가 거의 없고 길이가 다소 긴 중립종임.
-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막걸리는 국내에서 직수입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사가 수입해서 판매된 것임.

